동국대, 대학평가 5년 연속 TOP10 '쾌거'

중앙일보 대학평가서 8위 달성
1단계 상승…최고 순위 재달성
생명 · 화학분야 '최우수大' 선정
기부금 5위 등 교육여건 개선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종립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8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재기록했다. 또한 5년 연속 톱10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세웠다. 지난 2021년 발족한 학교법인 건학위원회 중심으로 연구·교육 인프라 확충 등 내부역량 결집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평가다.

동국대는 11월 26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학평가 결과와 의미 등을 설명했다.

윤재웅 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에서 동국대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재탈환했으며, 5년 연속 톱10이라는 기록도 세웠다"며 "이는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교중흥, 동국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 학교 구성원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202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는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 연구 △교육 여건 △학생 성과 △평판도 등 4개 영역 38개 지표의 평가가 이뤄졌다. 동국대는 2021년 9위, 2022년 9위, 2023년 8위, 2024년 9위, 2025년 8위를 기록하며 5년 동안 상위 10위권을 안정적으로 수성했다.

특히 동국대는 올해 신설된 학문평가 부문에서 생명·화학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며 이공계열 전문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는 '이공계 중점프로젝트'를 전격 단행하며 석학급 우수 교원을 초빙하고 '동국그란트(GRANT) 사업' 확대를 통해 초대형 R&D 연구비 수주를 지원한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 동국대는 외부연구비 10위, 국제학술지 논문수 11위 및 피인용 9위를 달성했다.

정영식 기획부총장은 "바이오메디캠퍼스 교수들이 국가 대형 과제를 수주함으로써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착하고 연구·교육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개선한 것이 주요한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반도체와 에너지 파트 육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문학 △사회과학 △경영·경제 △전자·컴퓨터 △수학·물리 분야에서는 '우수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국대는 건학이념 바탕에 '불교'가 있는 만큼 불교학을 비롯한 문학·사학·철학 등 인문학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인문사회 분야 논문 수는 9위로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피인용 부분이 전체적으로 낮았다. 이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면서 "인문사회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체재를 구축해 불교학을 비롯해 문·사·철이 강점이었던 동국대의 정체성과 면모를 다시 부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목표로 교육 여건 개선에도 힘썼고, 이는 '다니고 싶은 대학'으로 거듭나는 데 큰 요인이 됐다.

실제 불교계 등에서 답지하는 기부금으로 평가 대학 중 기부금 분야 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학부 1인당 장학금 9위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확대와 교내 취업박람회 등으로 중도 포기율이 낮은 대학 5위(2.9%)를 달성할 정도로 학생 만족도도 높게 확인됐다.

또한 학부모 진학 선호 대학 7위, 기업 신입사원 선발 선호 대학 10위, 국가·지역사회에 기여한 대학 9위, 기여할 대학 7위에 선정되며 대학 전반 평판과 이미지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동국대는 불교종립학교인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선명상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등 인성함양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조직에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는 2026년을 '국내 대학 톱5, 세계 대학 톱100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해'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학내 구성원 모두가 정진할 뜻을 밝혔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오늘 자리는 자축이 아니라 법인과 학교가 어떤 것을 보완하고 목표를 위해 각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자리"라면서 "교수와 직원 모두 열심히 해 주고 있지만 도약을 위해서는 한 번 더 변화가 필요하다. 건학이념을 되새기면서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하철 풍경소리 게시판 잇단 훼손

경춘선 등서 동일수법 20건 발견
수사 중 범행 이어…"대책 시급"


남춘천역 역사 내 풍경소리 게시판에 붉은색 매직으로 'X'가 그어진 모습.

전국 주요 지하철과 철도 역사에서 풍경소리 게시판이 계속해서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목종 스님)는 11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부터 남춘천역을 비롯해 15곳 이상의 풍경소리 게시판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춘천경찰서에 특정 범인을 고소한 상태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풍경소리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춘선 남춘천역 관계자가 풍경소리 게시판에 붉은 매직펜으로 'X'를 긋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발견, 풍경소리 측에 이를 제보했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에도 보물로 지정된 춘천 칠층석탑에 낙서를 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6~7개월에 걸쳐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역사의 게시판에 같은 수법의 훼손이 이어졌다. 풍경소리는 지난 8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협의로 춘천경찰서에 A씨를 고소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남춘천역 게시판을 4차례씩이나 반복 훼손해 왔다. 피해 게시판은 20여 개에 달한다. 목종 스님은 "게시물 교체 시 폭력행위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에 따라 공론화를 하게 됐다"면서 "범인 처벌 및 훼손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36-5583 임은호 기자

제33회 불미전 개막…대상에 최윤수 작가

12월 3일까지 수상작 전시
"불교미술, 수행이자 신행"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대상 수상작인 최윤수 작가의 '그대에게 가는 길'을 감상하고 있다.

한국 불교미술 최고 권위인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대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불미전) 수상작 전시회가 개막했다.

조계종은 11월 26일 서울 아라아트센터에서 제33회 불미전 수상작 전시회 개막식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불미전 공모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8% 증가한 219점(회화 108점, 조각 28점, 공예 58점, 미디어아트 25점)이 출품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올해 불미전 대상에는 조각 부문의 최윤수 작가가 출품한 '그대에게 가는 길'이 선정됐다. 최 작가의 '그대에게 가는 길'은 형상과 의미, 기술과 감성의 조화를 두루 갖춘 수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회화 부문 최현희 작가의 '불입심상', 공예 부문 홍우진 작가의 '대면'(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회화 부문 조미영 작가의 '화엄경약찬게'(국가유산청장상)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회화 부문 김정심 작가의 '펜 하나로 그리는 만다라', 김민지 작가의 '김룡사 신중도', 조각 부문 안경진 작가의 '숨', 공예 부문 김민주 작가의 '금빛서사'가 이름을 올렸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미술은 수행이며 신행이자 자비의 실천"이라며 "불교미술인들의 붓과 조각칼이 부처님의 자비를 새기고 세상에 희망의 색을 입히는 법공양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수상작 전시는 12월 3일까지 아라아트센터에서 이어진다. 신중일 기자

진주 호국사, 환지본처 '독성도' 공개

11월 21일 환수 공식 발표
"문화유산 지정 신속 지원"


1860년대 조성된 '독성도'.

진주 호국사(주지 학암 스님)는 11월 21일 경내 대웅전에서 조계종 문화부와 함께 1860년 제작된 '독성도(獨聖圖)' 환수를 공식 발표하고 성보를 공개했다. 이번 환수는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러 있던 성보가 환지본처한 의미 있는 순간으로 평가된다.

'독성도 환수 경과보고'에 따르면 독성도의 최초 해외 반출 시점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경매자료 분석 결과 1959~1969년 주한 프랑스 대사 로제 샹바르(Roger Chambard)가 초기 해외 소장자로 파악됐다. 그는 한국 불교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진 인물로,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감동해 유해 일부를 해인사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독성도는 여러 사적 경로를 거쳐 해외 경매시장에 출품됐으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해외 경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화기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지만, '한풍 10년(1860)' 조성 기록, '진주'·'진주성' 표기, 호국사의 옛 명칭 등을 종합해 호국사 유래 성보임을 확정했다.

종단과 호국사는 9월 11일 오스트리아 실시간 경매에 참여해 독성도를 낙찰받았고, 통관 절차를 마친 뒤 10월 22일 독성도를 호국사로 안전하게 이운했다. 전문가들은 호국사 독성도를 "19세기 중반 독성도의 초기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자, 해인사 화승과 진주 지역의 불화 전통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했다.

주지 학암 스님은 "오랜 세월 외국에 머물러 있던 성보가 다시 진주 땅, 호국사 품으로 돌아온 것은 부처님의 크신 가피"라며 "앞으로 천일기도를 봉행해 독성의 가피가 진주 시민과 사부대중에게 널리 회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경매 과정에서 학암 스님이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굳게 결심하고 어려운 조건에도 과감히 나섰다. 이 원력이 없었다면 환수는 불가능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번 귀환이야말로 '홀로 떠났으나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인연'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에 흩어진 성보들이 부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종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환수는 진주시 전체의 자랑이며,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문화유산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국사는 내년 1월 독성도 환수 기념 천일기도에 입재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